



희망이 가득한 세상을 위하여

지난 날 우리가 꿈꾸었던 참 세상을 위한 열정은 삶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가슴 뿌듯한 긍지로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내 자신을 생각하면 잘난 것 하나 없고, 내세울만한 것 하나 변변하게 이룬 것 없지만 그래도 처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음은 아름다운 꿈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던 그날들의 기억들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을 회상하거나 주변을 둘러볼 때에는 늘 느끼는 것이지만 '역시 사람이 희망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보다도 먼저 나를 껴안아 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있어 주었던 것은 다름 아닌 보잘 것 없는 친구, 동지였습니다. 물론 그들과의 사이에서는 아픈 기억들도 많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 벌써 20여 년 전의 일들이 되어 버렸고, 세상의 변화와 함께 이제는 그들의 소식도 잘 들리지 않는데, 『희망세상』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들을 가끔씩 되새겨보게 합니다. 나도 잊어버리고 친구들도 잊어버린, 그리고 모두의 기억에서 지워져간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추어내어 다시 한 번 쓰다듬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어 좋았습니다. 사춘기가 되어가는 딸에게 '내가 젊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우리들은 이런 생각으로 살았단다.'고 말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대만 노동당에서 일하고 있는 화교출신 중국인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에 있는 친구의 도움으로 타이페이까지 배송되는 『희망세상』을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7, 80년대 한국의 활동가들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존경할 수밖에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버리고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는 모습은 한국이 아니면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라고. 물론 서울의 친구라는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요란스럽게 설명해 주었는지(?) 대강 짐작은 있지만, 우리들의 당시의 삶은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약간 아쉬운 면은, 『희망세상』이 전하는 소식이 젊은 세대에게는 너무 어렵고 무겁다는 점입니다. 대만의 그 친구처럼 이해하지는 못해도 존경해 버린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도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겠지요. 좀더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한 주제의 선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남는 것은 이해하기 쉽고 감동을 주는 삶의 이야기일 테니까요.

요즈음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시끄럽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서로 얹혀있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을 끓어 옷을 꿰맬 수는 없겠지요. 먼훗날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승락(회사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습니다.

『희망세상』 제작과 관련하여 후기, 제안, 기타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은 엽서나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채택되는 분께는 작은 선물을 드립니다.

주 소 :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B동 2층 홍보팀 「희망세상」 담당자 앞
전 화 : 02-3709-7537 팩 스 : 02-3709-7530 이메일 : hjo@kdemo.or.kr